주제

*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파악 및 향후 영향분석

(코로나, 전쟁, 금리와의 상관관계) (기준년도 2020=100,%)

분석 결과

결론

1. 소비자물가지수 총 지수 동향 분석 결론

* 김지윤

: 1) 소비자물가총지수 - 코로나확진자수간의 관계

-상관계수가 0.86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코로나19가 시작된 초반에는 경제심리 위축과 사람들의경제활동 급감으로 소비자물가총지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20.11월부터는 다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해짐에 따라 공급의 마비로 인한 것

: 2) 소비자물가총지수 - 유가간 관계

-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의 시작으로 인해 야외활동 관련 소비활동이 급감함에 따라 유가 하락

-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급의 마비가 더 심해져 유가가 다시 급증

- 코로나 확진의 급증 + 전쟁 발발로인해 유가는 더 급증하기 시작 ==> 소비자물가총지수 증가

- 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야외활동 관련 소비활동이 다시 활발해져 유가 증가

: 3) 소비자물가총지수-금리간 관계

- 202.5월 전에는 반대의 양상, 후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관계수가 0에 가깝게 나옴

- 금리는 물가를 반영해 조정이 되므로 둘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의 분석이 어려움

: 4)

- 해외 또한 국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이러한 물가의 계속되는 상승은 여러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더욱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향후 어떤 추세를 보일지에 대한 예상은 매우 어려워짐

:5) 향후 추세를 조금이라도 예상해보기 위해 저희 조는 여러 요소들을 지출목적별, 품목별, 성질별로 분류해 최근 특수 상황들과 소비자물가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1. 세부 분야 분석 결론

- 지출 목적별 동향

- 이재훈

: 1. 여러 종목들 중에서 통신 항목의 경우 국가에서 정하는 우편료 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등과 같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교통, 오락, 교육과 같은 종목은 초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원유 종가나 금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3. 음식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와 같은 변수와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입니다.

4. 교통, 오락, 교육 종목의 경우 유가와 크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음식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종목의 경우 유가의 하락과는 영향이

없는 반면 상승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방영찬

: 1. 코로나 확진자 수와 탄산음료 지수의 양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 시기의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탄산음료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속됨에 따라 탄산음료 지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리와 진통제 지수의 음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금리 변동은 진통제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진통제의 지수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수와 진통제 지수의 양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 증상을 진통제로 가라앉히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속됨에 따라 진통제의 지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수와 마스크 지수의 음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 유행 후 정부의 정책이 마스크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의 지수는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탄산음료와 진통제는 높은 물가지수를 유지할 것이고 마스크는 낮은 물가지수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품목/ 성질별 동향

- 이재상

:

1. 소비자물가지수 (분야 : 공업제품)와 코로나, 유가 간의 관계 분석

공업제품 분야의 소비자물가를 분석한 결과 석유류 품목만 코로나 및 유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류 품목의 원재료가 원유인 특성상 유가의 흐름과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2020년 3월 사우디-러시아발 유가 대폭락으로 석유류 물가지수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를 실시하여 러시아산 석유의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의 공급은 축소되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엔데믹이 될거란 기대감과 함께 수요 증가가 맞물려 유가 상승하며 석유류 물가지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수가 줄었으나 집에만 머물며 이동이 줄어들어 원유가 남아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 하락 및 석유류 물가지수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한수

: 농축 수산물 전체 분야의 소비자물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표는 코로나, 원유가격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코로나 확진자수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농축 수산물 내 하위 분류의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채소, 과일, 축산물 분야의 물가 변동이 큼을 확인 하였고,

코로나 발생 이후 많은 증가량을 보였습니다.

이에 최종으로 농축 수산물 분야의 소비자 물가 급등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원유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채소, 과일, 축산물 분야가 급등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1. 최종 결론

세부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바,

지출 목적별로 \_\_\_

여러 목적별 물가지수들이 코로나 확산정도와 유가 변동에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품목 / 성질 별로 \_\_

석유 : 당연히 유가 영향을 많이 받음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 코로나와 매우 큰 상관관계

처음에 총 지수에 관한 분석 결과 ‘코로나 확진자 수와 유가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 물가 총지수가 증가한다.’ 라는 결과를 확인 하였는데

세부 분류에서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코로나와 유가의 증가에 의해 소비자 물가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와, 길어지는 전쟁으로인한 유가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상 합니다….!

자료 출처 :

* 소비자 물가 지수 자료
  + <https://kostat.go.kr/incomeNcpi/cpi/cpi_td/2/1/index.action?bmode=cpidtval>
* 코로나 국내 확진 현황
  + http://ncov.mohw.go.kr/
* 원유 가격 현황
  + http://investing.com
* 금리 변동 현황
  + https://ecos.bok.or.kr/#/SearchStat